

# 工業指向的食糧增産을

## 「資源내셔널리즘」의 奔流

昨年 10月 第4次 中東戰이 石油波動을 몰고 온後 資源危機意識이 人類의 머리속에 점점 뿌리를 깊이 박고있는것 같다.

原油값이 내리고 原油問題의 根本的인 解決이 全然 豫想하기 어려운 問題라고만 볼수도 없는 趨勢인데도 不拘하고 한편으로는 石油以外的 物資들 例를 들자면 非鐵金屬및 其他 主要物資 生産國들의 團合을 통한 高價政策이 一部는 實現되고 다른 一部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資源危機가 주는 恐怖感중에서도 가장 두려운것이 食糧難이 가져오는 두려움이다. 사람은 먹어야만 살수있기 때문이겠다. 이래서 지난 4月 泰國의 「티차이·추나만」副首相이 쌀 「카르텔」을 形成할 用意가 있다고 밝혔을때 그 實行可能性에 대해서 크게 의아심을 가지면서라도 일단의 關心을 가진 米穀輸入國들이었다.

그러나 食糧 「카르텔」을 하고 아니하는 「키포인트」는 美國이 잡고있는 것으로서 그는 아래에 말하려는 「食糧美國」의 막대한 實力이 立證하고 있다.

## 食糧危機의 防波堤인 美國

돌이켜 본다면 過去 10餘年間の 世界食糧消費는 44% 늘어났다 즉 年間消費量이 6億5千6百萬톤에서 9億4千2百萬톤으로 增加된 것이다. 그런데 穀物의 世界貿易量은 9千5百萬톤에서 1億4千萬톤에 激增하고 그중 美國의 輸出量이 3千7百萬톤으로 부터 6千9百萬톤에 이르렀다. 世界貿易量의 39%를 차지 하였던 美國의 穀



尹 章 奎  
(經濟評論家)

物輸出량이 49%에 達하게 된 것이다.

하기는 世界最大 農產物 輸出國인 美國의 世界市場 占有率은 20%에 그치고 있으나 主要輸出 農產物중에서 담배·棉花 보리·밀·콩 飼料穀物 등에 近年의 重點이 뚜렷해 졌으며 앞으로 더욱 食糧增産에 拍車를 加하게 되어 있다.

休耕地를 이미 모두 解除하고 今年의 食糧 輸出目標도 193億弗로 策定하였다. 品種別 輸出目標중 昨年에 3千4百萬톤을 輸出한 밀만은 輸出량이 줄지만 그것도 食糧으로는 約 倍가되는 47億弗로 잡고있다. 그리고 飼料穀物 7%增인 39億弗, 콩等 油脂類가 昨年보다 30%增인 45億弗이며 또 쌀도 190萬톤을 輸出하여 金額으로는 昨年の 約 倍額에 이를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73年 世界油脂貿易量이 51%를 美國이 차지하였으나 今年에는 53%에 上昇할 豫想이다.

工業製品의 相當한 部分은 유럽과 日本이 美國을 制壓한 셈이나 農產物의 國際競爭力만은 美國이 壓倒的이다. 그리고 穀物輸出은 輸出農產物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今年度に 美國이 農產物 輸入計劃을 89億弗로 세웠으므로 100億弗以上の 國際收支, 赤字를 豫想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은 人口面으로 보아서 우리의 約 7倍인 美國인데도 農業 戶數는 292萬戶로서 우리農家の 2百452千戶보다 겨우 47萬8千戶가 많을 뿐이다. 그리고 農業人口는 全體就業人口의 4%에 不過하지만 世界最大의 農產物 輸出國으로서의 地位를 確保하고 있는것은 美國의 全國土 22億6千4百萬에이커(約 9億2千萬ha)의 49%가 農耕地 또는 牧草地라는 天惠를 바탕으로 하여 其他自然條件이 좋고 國內消費水準

이 높으며 高度화된 技術·大規模農作이며 機械化한 農業인것 等等에 緣由해져 있다.

以上으로써 앞으로 食糧「내셔널리즘」의 擡頭與否는 美國의 態度如何에 따라서 決定될수 밖에없는 素地를 알수있으며 原油·原木 및 其他 主要原資材로서 그 生産國들이 群小國家層에 屬한 品目들 보다는 「資源내셔널리즘」의 露骨化 可能性이 稀薄한 것을 일단 人類의 多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食糧의 國際時勢가 73年度의 平均値보다 훨씬 上廻할것만은 不可避할 것으로서 73年에도 4億弗以上の 外穀導入用 外貨負擔을 한바있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바 아닐 수 없다.

家族計劃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人口成長率은 줄어가고 있다. 그러나 絶對人口가 늘어가는만큼 食糧全體量이 增加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現在로도 不足한 龐大한 量을 充足하여야 하고 또 輸出食品의 需要增加도 크기 때문이다.

하기는 우리國民의 食生活는 改善해야할 點이 많으며 특히 食糧의 浪費를 防止하는 것부터 改善課業이 시작돼야 할줄안다.

그리고 食品工業은 늘어나는 國內需要를 充足시켜야 할것도 그 지닌바 使命의 하나이지만 外貨獲得에 더욱 힘써야 하겠으며 또 그것이 可能하게끔 施策의 配慮도 더한 層 두터워져야할것 같다. 食品工業이 輸出工業으로 머리를 들기시작 한것은 늦은편이 었지만 成長率은 初期에도 年 100%以上을 記錄하였다.

## 學士들의 營農定着에 期待

農協中央會가 今 74年度 農科系大學 卒業生 129名에게 1人當 100萬원 以內的 營農定着金

을 支援키로 決定한 것은 快消息이다. 이는 年利 9%의 低金利인데다가 2年据置, 3年償還의 融資條件이다 總額 1億2千萬원의 規模인 이 資金은 「營農定着資金 融資指針」에 따른 支援이고 事後管理도 徹底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資金支援 對象者는 營農定着을 希望하는 今年度 農大系 卒業者로서 勤勉誠實하고 營農事業 計劃의 妥當性을 認定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그 事後管理者를 嚴格히 하여 資金效率을 높이게 되어있는 것이다. 支援받는 對象者의 事業은 擔當確認 教授가 融資償還이 끝날때까지 責任指導하고 該當市·郡組合도 經營指導등 融資金의 事後管理를 철저히 하며 또 市·郡農村指導所는 營農技術에 대한 責任指導를 하게된 것 등이 그것이다. 高水準인 現物價에 비추어 볼때 營農資金으로서의 100萬원 안쪽의 많지 않은 額數이다. 이 돈의 融資를 받는 사람이 自己資金을 얼마나 投入하게 될것인지는 勿論 그 事情과 計劃이 區區하겠지만 父兄등이 大學을 갔나온 젊은이에게 덤뽀 많은 營農資金을 내줄경우는 적을 것이며 또 卒業生 自身이 지니고 있는 營農資金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더욱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農協의 貸出資金이 그들의 營農定着을 위한 實로 값진 資金이라 여겨진다. 또 그럴수록 그 資金規模가 적다는 點을 痛感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몇가지의 附言을 해보고싶어지는 것이다. 첫째로 한사람에게 100萬원以內로 融資해 준다는것을 몇사람이 共同으로 貸出받아서 營農다운 營農이 될수있게끔 하는 길이 열려졌으면 하는 것이고 둘째로 確認教授·農協市·郡組合·市郡農事指導所의 3重監

督을 받아야 하게되어 도리어 非能率的일수도 있겠으며 더우기 學園에서 그나름의 自由生活을 누려온 新規卒業生 에게는 그같은 多重의 간섭이 營農을 一生의 天職으로 삼으려던 브로운 꿈이 깨지게 할수도 있겠다. 이런 點에 留意하여 3重의 指導·監督이 그分野를 明確히 劃定하고 또 指導·監督도 度에 지나침이 없어야 할것 같다.

세째로 卒業生의 事業計劃 作成에 부치고져하는 말이 있다. 營農의 種目選擇에 대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야할 營農의 種目은 大端히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 重要한 것이 食糧生産이며 食糧가운데서도 小麥增産이 所望스럽다. 왜냐하면 小麥은 家庭마다의 日常生活生活에도 極히 必要한 食糧이지만 食品工業의 原料인 때문이다. 工業食品은 國內軍·官·民需用으로 그리고 外貨獲得을 위한 輸出用으로서 그用途가 激增一路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小麥增産의 前途觀은 대단히 非鼓舞的의이다. 즉 關係當局의 長期食糧 需給計劃에 依하면 81年度에는 쌀 27萬7千톤, 보리 41萬6千톤이 各各 剩餘될 推計인데도 不拘하고 小麥과 옥수수등 雜穀은 크게 不足하게 되어 있다. 또 80年代에 가서도 年間 300萬噸의 外穀導入이 必要하다고 하는데 前記한바 81年度의 쌀, 보리의 供給過剩 推計를 參酌해 본다면 그 같은 龐大한 外穀導入이 穀種으로 雜穀일것에 짐작이 간다.

農大系 新規卒業生들로서 營農에 첫발을 내디디는 마당에서 小麥生産을 그 營農의 穀種으로 擇하는 것이 ① 相當히 먼 時點에 가서 可能한 일이기는 하나 小麥의 自給自足を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② 營農採算面으로도 甚 眼目으로 보아서는 有利하다. 하기는 이번

의 農協資金은 營農 定着資金으로 貸出되는 것이므로 對象農作物도 多様な 것이고 營農의 길로 나갈 新規卒業生들이 專攻해온 大學 공부도 몇갈래로 나뉘져 있다. 다만 食糧生産을 할수있는 사람이라면 쌀과 보리農事를 할수있어도 밀농사는 못한다는 素地的 隘路는 없을 것이므로 많이 小麥生産을 擇하도록 勸해두고 싶다.

## 國際小麥의 需給展望

國內 食品工業界는 國際 食品工業界의 共通의인 難關인 生産原資材의 量的確保觀과 그 高價壓迫을 오랫동안 느껴왔다. 그러나 그 두가지의 苦難중에서 小麥등 한가지만은 後退되기 시작한 것 같다. 原料의 값이 비싼點은 內需에 있어서의 消費支柱인 國民所得水準과의 關聯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試鍊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小麥과 같은 原料의 量的 確保만은 可能하게 될것같다. 밀가루 값이 大幅上昇된 後에 製品消費와 家庭 및 其他 밀가루 實需量이 줄어들었을뿐만 아니라 그밖의 理由도 곁들어 資金難이 作用하기도하여 韓國業者側이 約定된 小麥 15萬톤의 輸入을 保留하고 있다는 外信報道가 있었던 것은 且置하고라도 5月 22日 國際小麥 理事會(IWC)가 公開한 報告書에 依하면 世界 5大 小麥輸出地域인 美國·아르헨티나·濠洲·카나다·EC의 174—175年度小麥 移越在庫가 72—73年度의 2千40萬톤에서 50%가 늘어난 3千萬톤 이상될 것이라고 展望하였다.

그런데 移越在庫의 增加分은 大部分 美國의 小麥增産에 緣由할 것으로서 21年間の 最低水準인 72—73年度末에 比해서는 實로 3배에 가

까운 移越을 보게 될것이다. 즉 4百60萬톤이 1千4百50萬톤에 이를 것인데 그 뒷받침이 美國小麥의 大增産 豫想이다. 다시 말하자면 美國의 겨울小麥 收穫豫想은 昨年度産인 記錄의 統計보다도 27%나 上廻하는 4千3百90萬톤의 生産이 豫想되며 봄小麥 또한 1千5百20萬톤이 生産豫想 이므로 合計로 昨年の 4千6百60萬톤이 今年度에는 5千9百10萬톤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래서 美國은 이미 契約된 것으로서 船積만을 今年度 收穫期까지 延期하였던 24萬5千톤의 對蘇輸出 小麥의 船積期間을 線上再調整할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蘇聯의 2大 小麥產地인 「카자흐스탄」과 「西시베리아」의 봄小麥의 播種이 適期에 시작되었고 印度의 收穫高 豫想도 앞서 豫想했던 2千1百~2千3百萬톤의 上位水準에 接近하고 있다. 다만 「카나다」의 봄小麥 洪水被害의 程度가 關心事인 것등을 IWC는 指摘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是 5月 22日 IWC가 5大小麥輸出地域의 移越小麥을 豫測한 것이나 國際小麥協會가 74—75年度의 世界小麥全體의 74—75年度 生産推計를 낸것도 벌써 樂觀的이었다. 이에 依하면 74—75年度 收穫豫想이 3億4千1百萬톤(中共生産分은 包含치 않았음)으로서 72—73年の 3億1千1百30萬톤 73—74年の 3億3千8百萬톤등 그 어느것 보다도 많으며 이는 72—73年の 凶作이 耕作者들의 耕地擴張을 誘導하였기 때문이다.

## 工業指向의인 食糧增産

農水産部가 73年 10月末 現在로 調査集計한

農業基本統計에 따르면 ① 農家人口가 1千4百64萬5千名으로서 前年同期에 비해 0.2% 減少되었다. 工業化에 前進과 營農方法의 改善이란 두個의 側面을 엮보게 한다. ② 耕作規模가 10a未滿이 5萬3千戶로서 8.9%늘어나고 3萬ha以上이 3萬7千戶이어서 5.3%增加하였다. 耕作規模가 本格的으로 擴大되게 하자면 現行方法으로 所有制能이된 3町步線을 引上하는 등 制度上的 再調整이 必要하겠다. 그리고 農家戶數는 百77萬7千戶로서 前年보다 2千戶밖에 줄지 않았으나 都市民의 一部가 歸農하고 있는 것에 짐작이 간다. 이와같은 一連의 統計는 食品工業의 現實 및 展望과 連結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農家戶數가 줄어들면 生産費가 低下되어 直接으로 食工品の 「코스트」에 影響주는 穀價上昇 要因을 輕減할 수 있고 農業人口가 減少하는 것은 工業人口의 對照인 增大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追加工業人口의 一部는 食品工業에 流入되게 마련이다. 勿論 거기에는 適應할 工業從事員으로서의 訓練過程이 必要할 것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흔히 우리나라의 「過剩勞動力」을 지나치게 認識하고 있지만 人力不足이 눈앞의 問題로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 오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農水産部가 밝힌 農村의 業態別農作도 注目된다. 즉 前年度와 比較(73年の 對 72年增減) 해본다면 畚作農家が 0.3%의 微增인데 田作은 0.9%增이다. 蔬菜가 2.6%增인가 하면 果實樹農家は 第2位の 增加率인 17%가 늘어났다. 또 畜産은 第3位로 增加된 8.6%이며 養蠶은 最高增加率인 35.2%增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食糧問題中 위에서 말한 小麥의 74—75年度 移越推計가 約 50%늘어날 展望이며 쌀 收穫豫

想도 3億1千萬톤으로 英聯邦事務局이 發表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 關係當局이 分析한 穀物國際時勢(돈當)는 쌀값이 3月の 7百49弗이 5月에는 4百50弗로, 小麥은 2月の 2百23弗이 5月에는 百43弗에 콩은 昨年 6月の 4百2弗하던 것이 今年 5月에는 2百弗로 각각 大幅 떨어졌다.

이와같이 生産量의 豫測이 鼓舞的이고 時勢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現在의 在庫量은 놀랄만큼 低水準이며 74—75年度 移越量(小麥)의 高率增大도 72—73年の 너무도 적었던 移越量과 比較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現在 世界食糧의 備蓄量으로 타임誌가 報道한 바에 依하면 2次大戰後 最低水準의 備蓄量으로서 겨우 27日分에 不過하다는 것이고 世界 어느 大農業地帶에서라도 匡作의 不幸이 일어난다면 특히 貧困地帶에서 集團飢餓現象이 發生될 憂慮가 있다고 警告하였다. 또 別途의 外信은 赤道에 따라서 25億의 人口가 飢餓의 危脅을 받고 있다고도 報道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우리의 食糧事情에 陶醉하기만 하지 말고 外穀依存度가 높음을 銘心하여 食糧增産과 食糧節約의 兩面 對策에 힘쓰되 食糧問題를 工業化 命題와 直結시키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또 그렇기 때문에 穀種의 選擇에 正確을 期해야 한다.

며 農事가 손에 익숙해진 일이지는하나, 쌀 밥만 먹고 살아나가야 하는 時代는 이미 지났다.

國民의 食生活이 非米時代로 本格的인 轉換을 指向邁進할 때가 왔다.